

바람위에 서다 바다위를 걷다

키우리산악회와 떠난 가을여행

가을여행 비평



배학희씨와 딸 김희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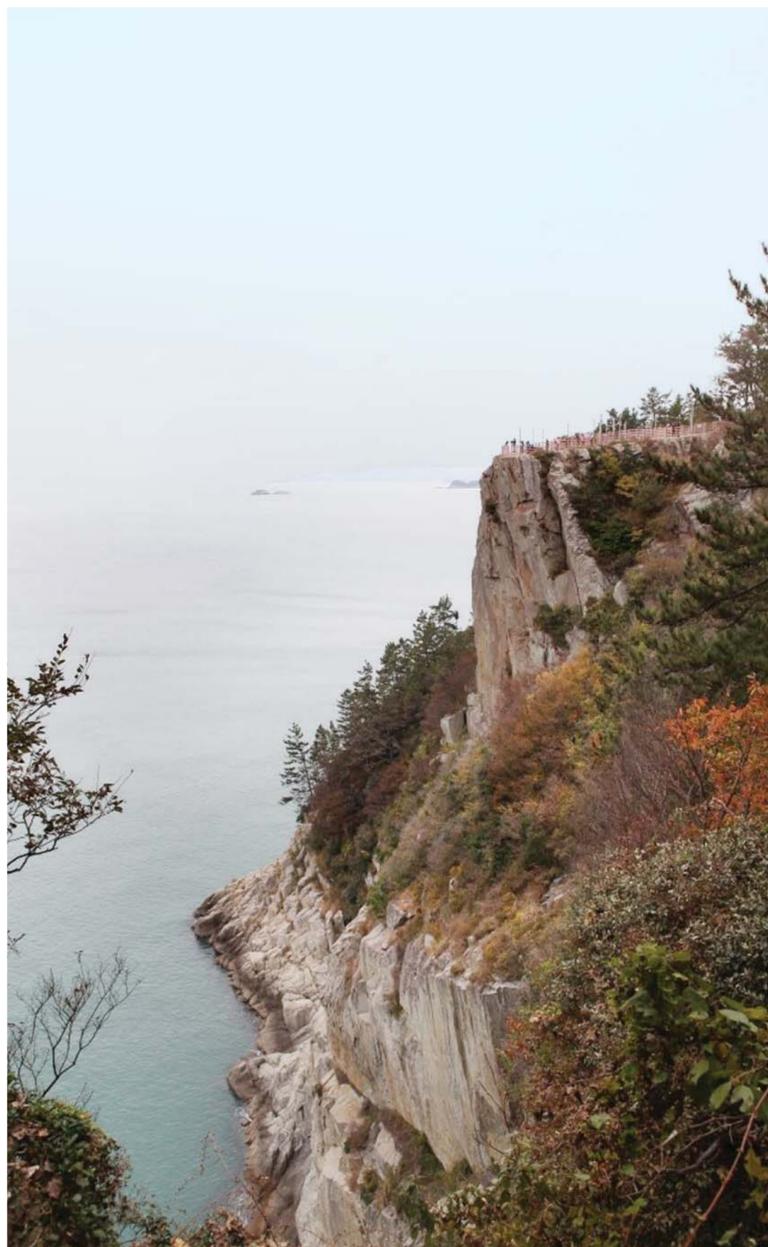
내게 산행은 언제나 설렘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 산행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달랐다. 내 고향 여수 금오도를 키우리회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금오도는 섬모양이 큰 자라같이 생겼다고 하여 쇠금(金) 자라오(鰲) 섬도(鳥)를 쓴다. 봄에는 대부산의 진달래 여름에는 안도 검은몽돌해수욕장 가을에는 역시 겨울엔 동백이 아름다운 곳이다. 특산물 은 유자와 방풍 더덕 같은 약초와 전복, 탈게 등이 있다.

어릴적 걸었던 아련한 고향의 길
세월을 거슬러 어느 늦가을 떠난 여정
추억의 조각들이 모여 만든 풍경들
슬한 그리움이 내 삶의 여백을 채우다

지난 9일 아침 6시 광주 비엔날레주차장에서 다섯명의 지인과 딸, 그리고 이영길 회장님을 비롯한 키우리회원 46명이 금오도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섬 산행이라 다른 때보다 이른 시간에 출발해 아침을 곡성휴게소에서 끼죽으로 대신했다. 차안에서 바라다본 들녘 풍경은 전형적인 늦가을의 평온함이다. 오전 8시경 돌산 신기항에서 30분간 배로 이동 여천선착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버스로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비령길 첫 번째 코스인



비령길 초입에서 단체사진한 것.



해안선을 따라 섬을 둘러보는 비령길 산행의 묘미는 걸을때마다 달라지는 한쪽의 그림같은 풍경들이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삶의 여유를 가르쳐주는 자연은 인생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영역이다.

함구미(5km)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함구미는 나의 8대 할아버지께서 정착해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비령길에서 비령이란 여수말로 '벼랑'을 뜻한다. 벼랑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섬을 둘러보는데 심어 놓은 듯 한 야생화와 동백나무숲, 커다란 소나무들이 인상적이다. 금오도는 옛날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보수할 때, 그리고 거북선 같은 전선을 만들 때 쓰는 소나무를 공급하던 곳이다. 경치를 감상하며 걷다보니 금오도 최고 절경인 90m 수직 절벽 미역널방이 나왔다.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절벽이 인상적이

다. 미역널방 건너편에 보이는 섬은 나로호 발사대가 있는 고흥 나로도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발사대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날은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별이 좋아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지게로 지고 와서 말렸다는 미역널방은 어렸을 적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절벽에 위치해 직접 본건 비령길이 생긴 이후다. 경치 좋은 수달피비령에서 서영대 회원께서 준비해온 문지리와 생김치에 막걸리를 한잔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성진 총무가 2주간 연습해 온 '내 나이가 어때서'란 곡을 선창하자 이광호·오주섭 회원도 흥을 도왔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길을 가니 큰 바위산과 억

산행앨범



새발이 보였는데 그 바위가 옛 송광사 절터이다. 전설에 의하면 보조국사가 모후산에 올라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조각한 새 세 마리를 날려 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국사전에, 또 한 마리는 여수 앞바다 금오도에, 다른 한 마리는 고흥군 금산면 송광암에 앉았다고 한다. 이를 삼송광(三松廣)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고려 명종 25년(1195) 보조국사 지눌이 남면 금오도에 절을 세운 기록이 있어, 이곳 절터는 송광사의 옛터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산중턱 바위 위에 절을 세웠다는 게 참 신기했다.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용두마을 쪽으로 가자 예전엔 전부 고구마 밭이었던 곳이 방풍나물밭으로 바뀌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방풍은 중풍과 경련을 예방한다고 해서 금오도의 특산품이 됐다.

1코스 끝에서 12명의 회원들은 대부분으로 가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회원들은 비령길 산행을 계속했다. 2코스인 두포에서 직포 코스(3.5km)에는 초본이 있다. 초본이란 섬에만 있는 독특한 장래풍습이다. 상주가 고기잡이 하러 간 사이 가족이 갑자기 상을 당하면 시신을 땅 위에 올려놓은 뒤 짚으로 엮은 아령을 덮어 3-5년 후 빼만 골라내어 묻는 풍습이다. 초본을 지나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가다 나온 전망 좋은 바위 위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신우대 사이길을 지나 2코스를 완주했다. 원래 비령길 산행팀은 3코스까지 완주 할 예정이었으나 내리는 비로인해 2코스를 끝으로 산행을 끝마쳤다.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멋진 추억여행을 하게 돼 행복했고, 키우리 회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 향하는 버스에 오르니 가을비가 내렸다. /글=배학희(키우리산악회원) /사진=이광호(광주매일 시민기자)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보양식 약오리전골/꼬리탕(찜) 아귀찜

점심 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녹차 굴비정식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명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매 : www.megabox.co.kr
▶ ARS :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그레비티-3D	12세
2관	노브레싱/공범	15세
3관	더 파이브	전체관람가
4관	친구2	전체관람가
5관	붉은 가족/더 파이브	15세
6관	친구2	전체관람가
7관	토르:다크월드	12세
8관	토르:다크월드	12세
9관	카운슬러	전체관람가
10관	동창생	15세

메가박스클롬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동창생	12세
2관	토르:다크월드	12세
3관	동창생	15세
4관	노브레싱/더 파이브	15세
5관	토르:다크월드/친구2	12세
6관	동창생	15세
7관	공범	15세
8관	카운슬러	전체관람가
9관	더 파이브	전체관람가
10관	친구2	전체관람가

메가박스클롬버스시네마하남

*매일 심야영양입니다!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무료주차 3시간 북구보건소 건너편

1관	공범/그레비티/노브레싱/더 파이브	15세/12세/전체관람가
2관	토르:다크월드	12세
3관	더 파이브	전체관람가
4관	동창생	15세
5관	카운슬러/더 퍼지	전체관람가
6관	그레비티/노브레싱/친구2	12세/15세
7관	친구2	전체관람가

메가박스전대